

5단계로 확대 개편 행자교육 내실 다져

교육원 “39기 입방자부터 적용” 지침 밝혀

행자의 안정적인 승가 정착을 위해 기초교육과정의 5단계로 확대 개편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스님)은 지난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달라진 기초교육과정 지침을 설명했다. 기존의 △사찰교육(5개월 이상) △본사교육(4박5일) △행자교육원(23일) 등 3단계를 △일상교육(2개월 이상) △입문교육(5일 내외) △본사교육(3개월) △수계예비교육(5일 내외) △수계교육(2주 내외) 등 5단계로 세분화한 것이 골자다. 전체 행자교육기간은 6개월로 동일하다.

특히 세간의 ‘오리엔테이션’에 해당하는 입문교육을 신설하고, 대중생활을 통해 자연스럽게 수행자로서의 위와 종도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본사교육을 강화했다. 종단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소속

개선된 기초교육과정 지침				
교육명	기 간	교육주체	자 격	
1단계	일상교육	2개월 이상	사찰	행자등록자
2단계	입문교육	5일 내외	교육원	행자등록 후 2개월 이내
3단계	본사교육	3개월	본사	2단계 이수자
4단계	수계예비교육	5일 내외	본사	3단계 이수자
5단계	수계교육	2주 내외	교육원	4단계 이수자

감과 애중심을 함양하고 올곧은 출가의식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 주요 취지다. 이와 함께 달라진 교육지침에 따라 월별 교육일정도 새롭게 짰으며 30여 권의 불교교양도서를 각 교구본사 행자실에 비치하도록 했다.

교육원은 개선된 교육지침이 시행되면 출가 행자들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사찰에 적응하는 동시에 효율성을 높인 교육으로 중도 하산율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변경된 지침은 오는 가을 제39기 수계교육(행자교육

원) 입방자부터 적용되며, 교육원은 지침의 제도화를 위해 교육법과 같은 관계법령의 개정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교육부장 법인스님은 “출가자들의 발심과 원력 정립을 도울 목적으로 기초교육과정 지침을 바꾸게 됐다”며 “이와 병행해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는 스님들로부터 출가동기와 수행담, 포교노하우를 듣는 초청강연회를 여는 등 행자의 발심을 다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불기 2554년 한국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가 지난 1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참석한 지도자들은 발원문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진정한 불제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세상 안락케 하는 일에 앞장서자”

종단협, 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 봉행

불법흥포와 국민화합을 기원하는 불기 2554년 한국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가 지난 1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이하 종단협) 주최로 열린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종단협 소속 27개 종단 대표,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스님, 포교원장 해충스님, 불교신문 사장 선묵스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호영 특임장관, 김진표 민주당 국회의원, 박재완 청와대 불자회장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종단협 회장 자승스님은 신년법회에서 “세상을 바르게 보는 지혜와 일체 중생의 어려움을 안타깝게 여기는 자비의 마음으로 세상을 안락하게 만드는 일에 앞장서자”며 불자들을 독려했다. 아울러 “이제 우리는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어루만지고 부처님 가르침으로 해법을 제시하면서 세상과 소통하고 화합할 것”이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사회 공동선 증진을 통해 불교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사에서 “우리 사회 일각에 존재하는 갈등을 치유하고 화해와 통합을 이루어 행복이 충만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일에 불교계가 지혜를 모아 앞장서주시길 바란다”며 “정부도 일로영일(一勞永逸)의 자세로 행복한 세상 만들기

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사부대중은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이 봉독한 발원문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라는 불자가 아니라 이웃과 사회에 부처님의 무량한 가르침을 전하는 진정한 불제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종단협은 신년하례법회에 앞서 14일 오전 서울 AWW컨벤션센터에서 제46차 정기총회를 열고 회비제납 종단의 자격상실 조항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가결했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 공모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가 불기 2554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를 공모한다. 글자수는 10자 내외이며, 마감은 1월29일이다. 접수는 이메일(kang@buddhism.or.kr)과 팩스(02-725-6643)로 할 수 있다. 참가자격은 ‘부처님 오신 뜻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모든 분’이면 된다. 1인 최대 2개씩 응모 가능하다. 당선작에는 3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봉축표어는 △부처님오신날의 참뜻을 알리는 내용 △사회적 소통과 화합을 불교적 메시지를 담아 표현하는 내용 △어린이, 청소년 불자들을 격려하거나 포교와 불교중흥에 관련한 내용 △이웃을 위한 자비나눔을 실천하는 내용 △동체대비의 부처님 가르침을 사회에 실천하는 내용(생명존중, 생태환경, 인류평화 등)이면 된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수요일 특별기획 & 새연재



‘통합종단에서 개혁종단까지’ 7면

‘앞서가는 교구본사’ 은혜사 10~11면

군중교구 2010 계획은... 14면

◀ 지구촌공생회 1000번째 우물 15면

조계종 5만불 긴급 지원 ‘논평’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 대지진 참사와 관련, 희생자를 애도하는 교계의 성명과 자비의 구호활동이 잇따라 펼쳐지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15일 아이티 대지진 참사와 관련 애도논평을 발표하고 구호활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총무원은 우선 자비나눔 긴급재해구호 기금에서 5만불을 아이티에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범종단 차원에서 모금운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조계종 대변

인 원담스님(총무원 기획실장)은 애도 논평에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들의 왕생극락을 기원한다”면서 “아울러 부상을 당하고 피해를 입은 분들의 쾌유를 기원하며, 아이티 국민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담스님은 “우리 종단은 이번 지진 참사로 피해를 입은 아이티 국민들을 적극 도울 것”이라면서 “국제사회에서도 아이티를 돕기 위한 인도적 지원 활동이 적극적으로 펼쳐지기를 기

‘아이티 참사’ 애도...보시



덕숭총림 수덕사 모금 현장.

수덕사 본·말사 등 성금 잇따라

대한다”고 당부했다. 해외자원사업기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산하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스님)도 15일 애도문을 통해 “아이티의 지진 피해 주민들이 참혹한 재난 상황을 하루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지진 참사로 극심한 고통과 상실감을 겪고 있을 아이티 국민들의 육체적, 정신적 상처가 하루 속히 치유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불교계 국제개발구호단체인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스님)는 ‘아이티 재건을 위한 긴급구호 캠페인’을 전개한다. 공생회측은 “1월15일 현재 10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집과 건물 등 생활의 터전마저 다 무너져버려 절망과 시름에 빠져 있다”며 “긴급구호 캠페인에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2면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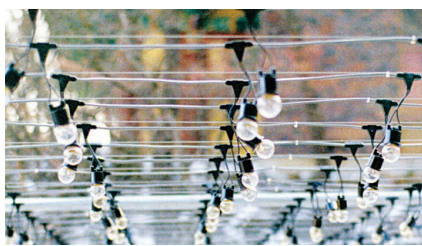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여래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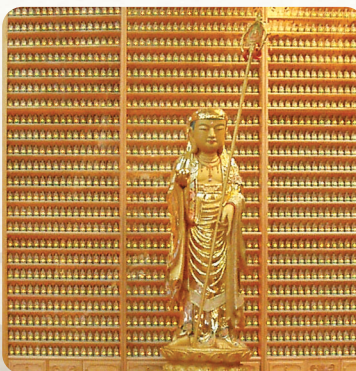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동해 독도는 한국 땅’

※ 주름등 · 풍등 주문 받습니다.(사찰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영가등



종등



육바라미 만월등(육바라미 주름등)



팔각봉축집등



종등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생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